

#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 차세대 배터리 우수기술 보유 기업인 미(美) 솔리드 파워 최고운영책임자(COO) 면담
- 차세대 배터리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국내 투자 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목)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솔리드파워(Solid Power) 최고 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솔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 원을 지원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솔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민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권태성 (044-203-5657)